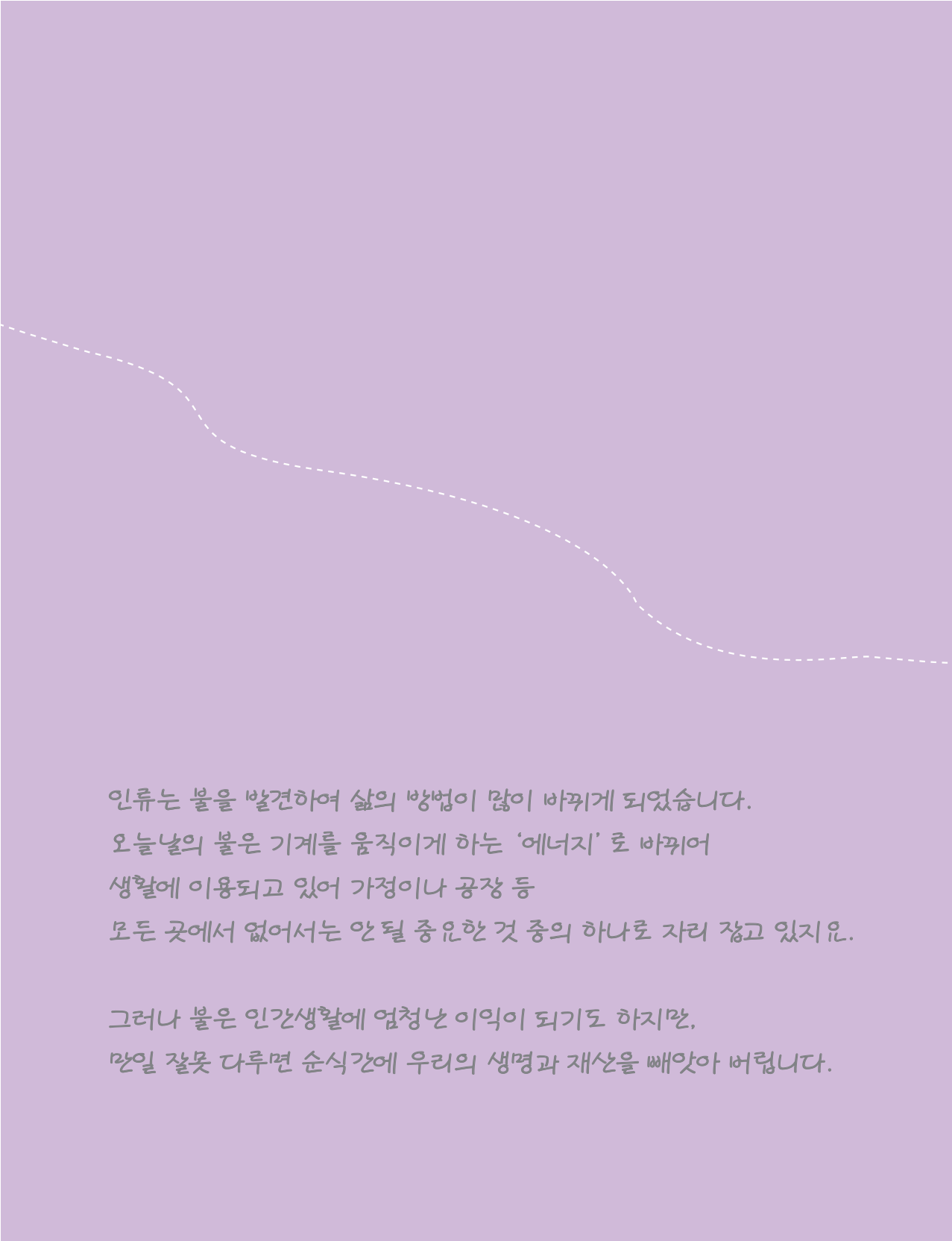


초등학생용

불조심 기러잡이





인류는 불을 발견하여 삶의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불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어
생활에 이용되고 있어 가정이나 공장 등
모든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나 불은 인간생활에 엄청난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만일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불조심 길라잡이’와 함께 하기 전에

이러한 불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를
게을리 하는 데서 비롯되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불조심 길라잡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쉽게
불조심에 대한 지혜와 값진 교훈을 드리게 될 거예요.

- 편집자 -

2010. 4

contents

불조심 길라잡이

- Part 1. '불'이란 무엇일까요? 6**
1. 불의 역사
 2. 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 Part 2. 화재 원인과 예방 9**
1. 전기화재
 2. 가스화재
 3. 유류화재
 4. 담뱃불화재
 5. 불장난
 6. 방화
- Part 3.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28**
1. 주위에 빨리 알려주세요.
 2. 작은 화재일 경우 불을 끄세요.
 3. 불이 꺼지지 않으면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4. 실내에 갇혔을 때
 5. 119에 신고하세요.
- Part 4.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36**
- Part 5.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요? 38**
1. 경보설비
 2. 소화설비
- Part 6. '피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46**
1. 피난시설
 2. 피난설비
 3. 피난기구
- Part 7. 불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50**



- Part 8. 장소별 화재안전수칙 52
1. 우리 집 안전수칙
 2. 학교 안전수칙
 3. 공공장소 안전수칙
- Part 9. 소방관이 하는 일 56
- Part 10. 보험회사가 하는 일 57
- Part 11.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하는 일 58
- Part 12. 우리가정 화재안전 map 60
- Part 13. 불조심 포스터 및 표어 62
- Part 14. 화재사진 63
- Part 15. 불조심 어린이 노래 64
- Part 16. 현주의 꿈이 불 타 버렸어요. 66

Part · 1 | ‘불’이란 무엇일까요?

1. 불의 역사

아주 옛날, 사람이 불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화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화산, 번개불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불을 몹시 무서워해 피해 다녔대요.



그러던 중,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추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캄캄한 밤에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궁리 끝에 돌끼리 여러 번 부딪치거나
나무끼리 계속 마찰시키면
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이후 불은 인간생활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불을 신성하고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올림픽에서의 '성화'가 바로 그 한 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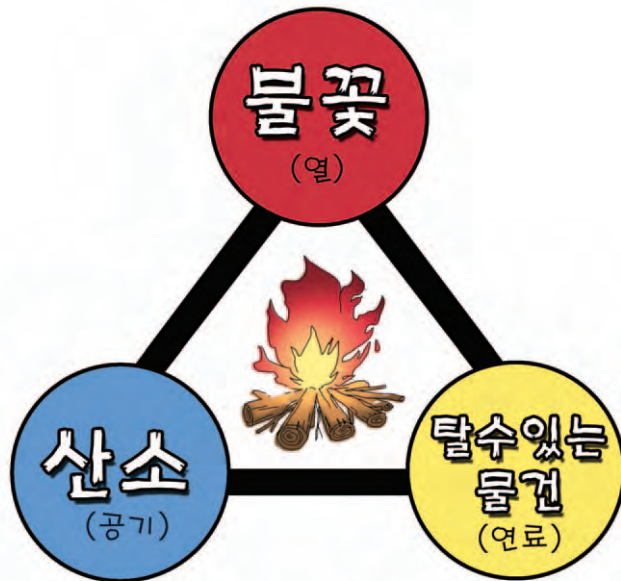
재 이렇게 신성하고 귀중한 불,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보을까요?

Part · 1 | ‘불’이란 무엇일까요?

2. 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불이란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꽃, 산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불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을 ‘열’, ‘열원’, ‘점화원’으로, 산소를 ‘공기’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연료’, ‘가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불의 세 가지 요소



※ ‘화재’란?

불은 ‘이로운 불’과 ‘해로운 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해로운 불을 화재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실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여 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화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 점화원이란?

성냥,ライター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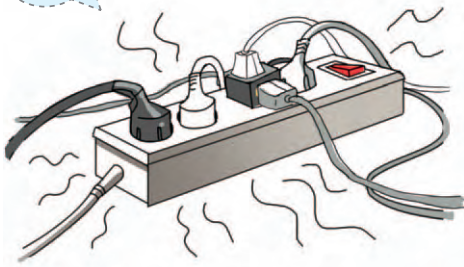
※ 가연물이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나 물건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우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불도 일어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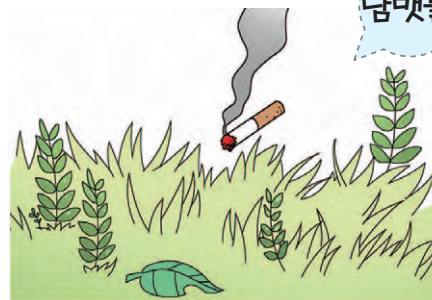
가스



기름



담뱃불



불장난



방화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랍니다.
이를 부주의로 인한 불이라고 하지요,

부주의로 인한 불은 담배꽂초 방치, 불씨나 불꽃 방치,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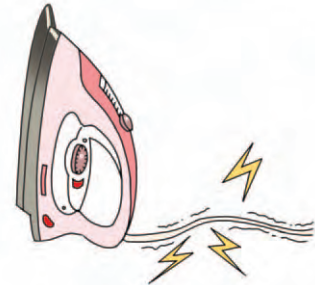


1. 전기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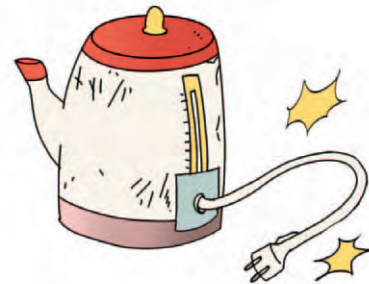
전기화재는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 및 기구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전선과 제품 또는 전선과 전선 등의 접촉 불량, 정전기, 제품 결함, 전기제품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이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에서 새기도 합니다. 이것을 '누전'이라고 하며, 이때 감전되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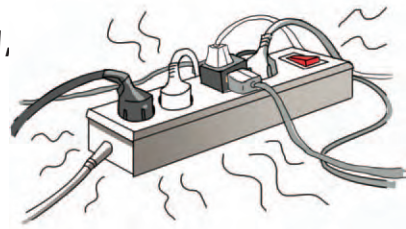
하나의 콘센트에 텔레비전, 전기밥솥, 다리미 등 여러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하면, 적정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과부하'에 걸려 지나치게 높은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과열'이라고 하지요. 이 역시 불이 나는 주요 원인이 된답니다.



낡은 전기용품은 누전되거나 전기의 흐름이 나빠져 열이 나게 되어 불이 날 수 있지요.

전기기구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튀는 걸 본 적이 있죠? 이런 불을 '전기불꽃(스파크)'이라고 한답니다.

전기용접 시 일어나는 불꽃으로 인해 불이 나기도 하며, 천등번개 칠 때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전기기구가 켜있는 경우 번개가 전깃줄을 타고 들어와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어떻게 하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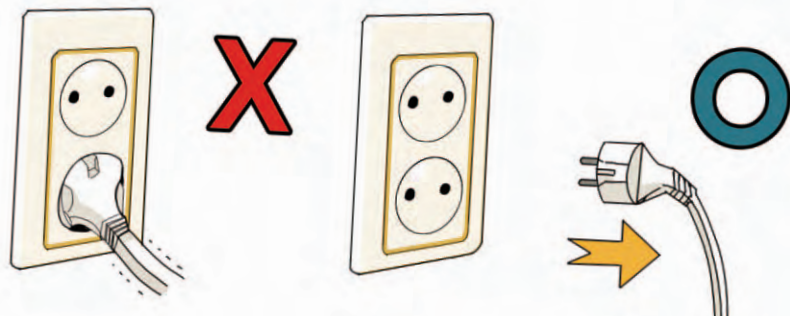


전기다리미나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에는 옷이나 인형, 만화책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멀리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전기는 계속 흘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깃줄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으세요, 전깃줄을 잡아당기면 전선껍질이 벗겨져 우리 몸이 감전되거나 전기불꽃(스파크)이 튀고 누전으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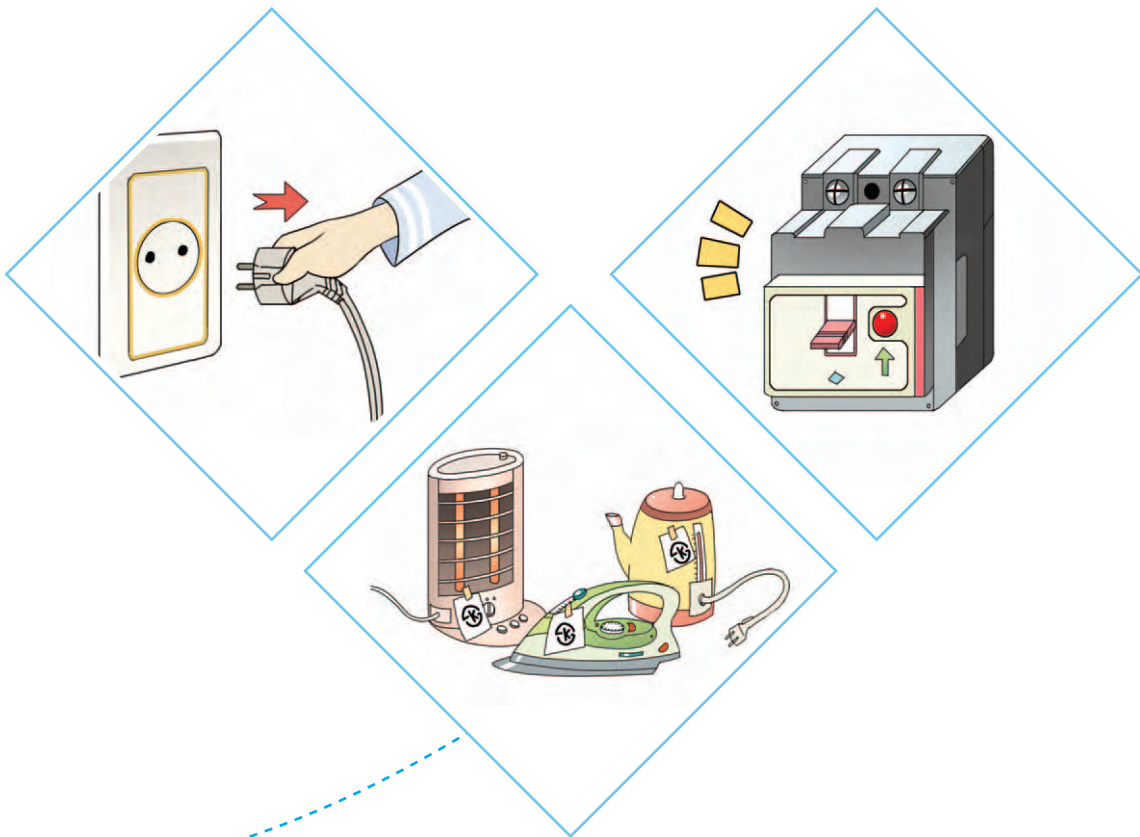
전선이 꼬여 있거나 가구, 문 등에 의해 눌려지면 전선이 손상되거나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㉔" 마크나 "㉕"자가 표시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불량품을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불을 만날 수도 있지요,
 또한 고장 난 전기제품이 있을 때에는 어른들께 말씀드려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우리들이 잘못 만지거나 가지고 놀면 불이 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세요,
 '누전차단기'란 전기 누설 등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누전차단기의 시험용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에 있는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고장 난 것이므로 어른들께 말씀드려 고쳐야 해요.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2. 가스화재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가스난로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기구는 많지요.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가 불량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 가스가 공기 중에 새어나가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날 때에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해요.





가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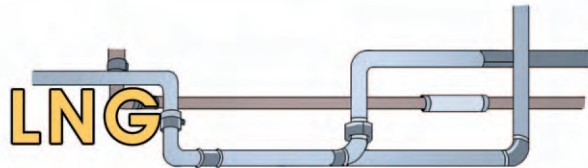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연료는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부탄가스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LPG' 라고도 불리며, 주성분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입니다.

부탄 + 프로판



액화천연가스는
'LNG' 라고도 불리며, 주성분은 메탄가스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땅 속에 배관을 묻어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주로 LNG이며, 일부 지역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LPG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탄가스는
부탄과 부틸렌의 혼합 가스로서 압축하면 쉽게 액체화되므로, 주로 1회용 충전용기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이동식 부탄가스 연소기에 끼워서 사용하거나, 가스라이터 등에 쓰입니다.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어떻게 하면 가스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스 사용 전에는

-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평상시에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서 점검하세요,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실외 받침대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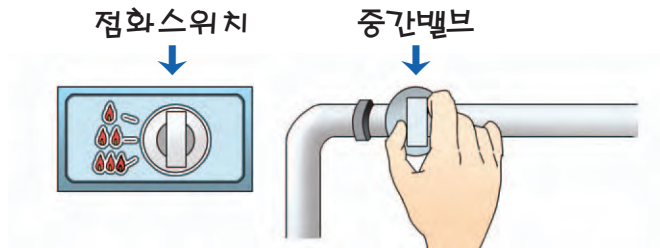
가스 사용 중에는

- 가스레인지 점화스위치를 돌려 불을 켜 후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하고,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정하세요,
- 조리중에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돼요.



가스 사용 후에는

점화스위치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가스가 셀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 발견 즉시 점화스위치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그세요,
- 전등, 컴퓨터, 선풍기 등 전기기구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 전기불꽃이 생기면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터나 성냥에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새어 나온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공기보다 무거운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는 빗자루나 방석 등으로 쓸어내야 합니다.
- 그러나 어린이 여러분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가스가 새는 곳을 얼른 피한 후, 어른들에게나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비실 또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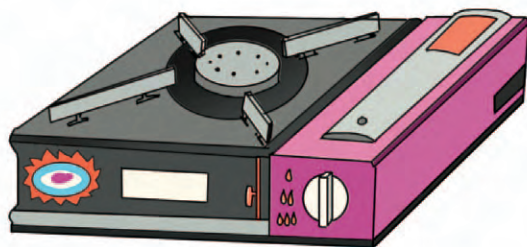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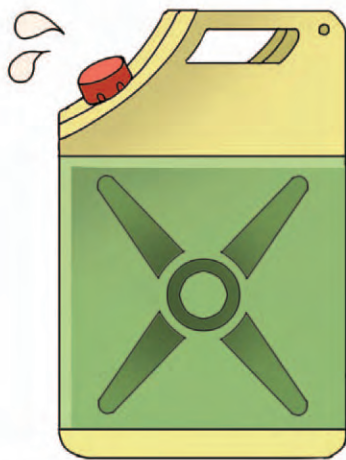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프로판가스 분자량은 44(C₃H₈), 부탄가스 분자량은 58(C₄H₁₀), 메탄가스 분자량은 16(CH₄)입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분자량이 큰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보다 분자량이 작은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3. 유류화재

석유, 휘발유 등을 통틀어 유류라고 한답니다.(기름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유류에 의해 일어난 불'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유류화재"라고 하지요.

석유나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구는
 우리 주위에 난로, 보일러, 버너 등이 있지요.
 이러한 기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류가 새어나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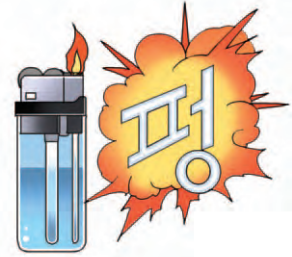


유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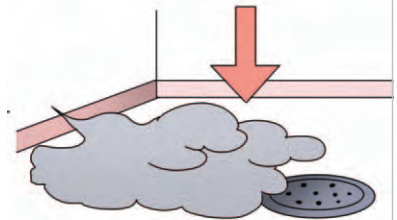
(1) 불이 붙기 쉬워요.

유류는 전기스파크나 불꽃,ライター불, 담뱃불 등에 의해 불이 붙기 쉬워요,
한번 불이 붙으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밀폐된 용기나 실내공간에서 유류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붙은 즉시 폭발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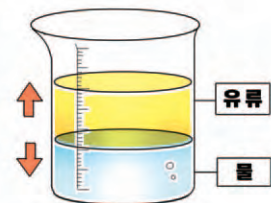
(2) 유류에서 발생된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휘발유, 등유 등 유류에서 증발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하수구 등 낮은 곳에 있습니다.
화기사용시설이 대부분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요.



(3) 물보다 가볍고, 물과 혼합되지 않아요.

유류는 물보다 가벼워 물과 섞으면 물 표면에 뜨게 되요,
따라서 불이 날 경우 유류가 물 위에 떠서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불이 더욱 확산되는 위험이 있어요.



(4) 물로는 불을 끄기 어려워요.

유류화재가 일어날 경우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따라서 소화기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어떻게 하면 유류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난로나 버너 등을 사용하는 중에 기름을 넣거나 옮기면 절대로 안돼요,
기름이 다 떨어져 새로 넣거나 옮길 때에는, 불을 끄고 난 후 조금 기다렸다가
기름을 넣거나 옮겨야 안전하답니다.

가까운 곳에 기름통, 페인트통 등이 있을 때 성냥이나 라이터 불,
모닥불을 켜서는 절대 안돼요.

난로나 버너 등을 켜놓고 옆에서 장난을 치면 당연히 위험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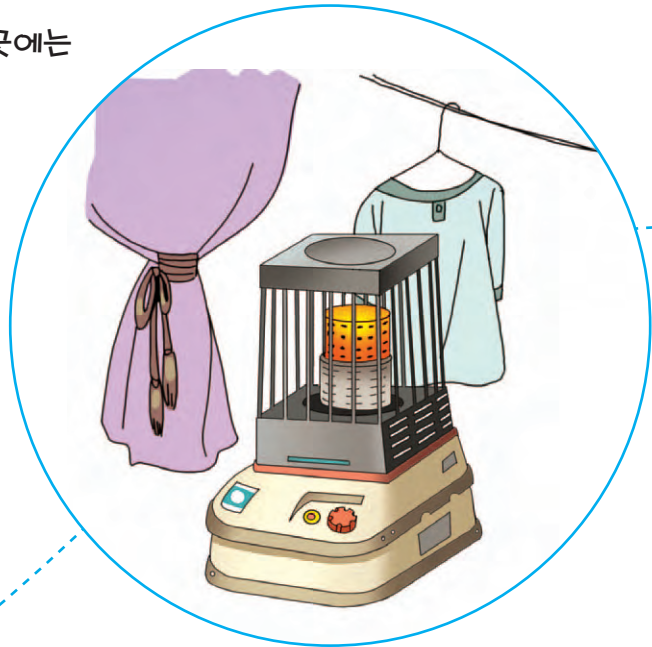


난로를 커튼 가까이 두고 사용하거나, 난로 주변에 빨래나 잘 타는 물건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열기구를 켜둔 채로 오랫동안 밖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외출할 경우 난로 등을 꼭 끄고 나가야 합니다.

화공약품이나 기름을 취급하는 곳에는 꼭 소화기를 갖다 놓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기름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4. 담뱃불화재

해마다 담뱃불로 인해 무서운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무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도 타서 없어집니다.

담뱃불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불이지만,
작다고 깔보면 큰 코 다치죠.





어떻게 하면 담뱃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안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방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불에 재가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이나 숲 속에서도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은 등산객이나 성묘객이 버린 담뱃불 때문에 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불이 불을 만할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돼요.

불씨가 붙어 있는 담배꽂이를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을 경우에도 불이 날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위 사항들을 어른들께 꼭 말씀드리세요.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5. 불장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어린이 불장난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불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라이터 등을 가지고
불장난을 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불은 라이터, 양초, 담배불, 화약놀이, 모닥불 등으로 장난을 치다가
많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은 친구나 동생이 이런 불장난을 하면 못하도록
평상시 불의 무서움을 알려주세요.

불장난은 3~7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린 동생이 불장난을 하려고 하면 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촛불놀이를 하다가 촛불이 쓰러져 불이 옮겨 붙거나,
책 또는 종이 위에 촛불을 켜놓은 채 놀러나간 사이에 불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난로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난로 등에 종이를 넣어 불을 붙여 장난을 하다가 잘못하면
종이를 놓쳐서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즐거운 폭죽놀이도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폭죽을 쏘아 올려 재미있게 놀다가 종이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에 불꽃이 튀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Part · 2 | 화재원인과 예방

6. 방화

'방화'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방화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방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불을 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지요,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건물이나 상품 등에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한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방화를 저지른 사람(방화범)은 물론이고, 불을 내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 방화를 준비한 사람, 방화범에 동조한 사람까지도
법에 의해 무서운 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방화에 의한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NO!

Part · 3 |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로운 불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리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불은 화를 내듯 무섭고 나쁜 불로 변해 우리 집과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한답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따라해 보세요.





1. 주위에 빨리 알려주세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주위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해요,

"불이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세요,

소리가 날 수 있는 물건들을 두드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비상벨이 있을 때에는 비상벨을 누르세요,



방에 갇혀 있을 때에 불이 나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흰색 천 또는 옷가지 등을 창문 밖으로 흔들어,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세요.



Part·3 |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2. 작은 화재일 경우 불을 끄세요.



불 끄는 방법



불의 세 가지 요소인 불꽃, 산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중 하나만 없어도 불은 꺼진답니다. 이를 ‘소화’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볼까요?

- 불이 난 곳에 물을 부으세요. (냉각소화)
온도가 내려가거나 열을 차단하게 되어 불이 꺼진답니다.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우세요. (제거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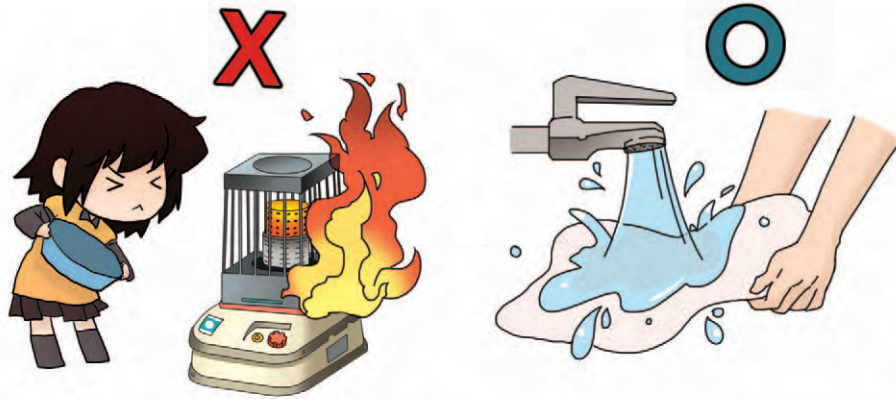
- 모래, 담요 등을 가지고 불에 타고 있는 물체를 완전히 덮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질식소화)



-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대부분의 화재는 소화기를 사용하면 불이 잘 꺼집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뒤쪽의 소화설비편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물로 끌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이 나면 물로 다 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물을 사용하면 불이 더 커지며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시다.

- 석유난로와 같이 기름을 쓰는 기구에 불이 났을 때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돼요.
소화기가 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으로 난로나 기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야 꺼집니다.

- 전기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게 되면 '찌르르' 감전이 됩니다.

- 어머니께서 집에서 튀김요리를 하던 중에 불이 붙었을 때에도
물을 뿌리면 안돼요,
물로 인해 기름이 튀어
불이 번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제일 먼저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Part·3 |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소화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침착하게 가스버너를 잠근 뒤 물에 적신 수건이나 셔츠 등으로 덮어서 끕니다.
불이 작을 때에는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끌 수도 있습니다.





3. 불이 꺼지지 않으면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소화기 등으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이때 아끼는 물건을 챙기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돼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어른들의 안내를 받아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가 먼저 대피하도록 합니다.

손수건이나 수건, 화장지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린 채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하세요,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비상구를 이용하세요,
불이 나서 전기가 꺼지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위험이 있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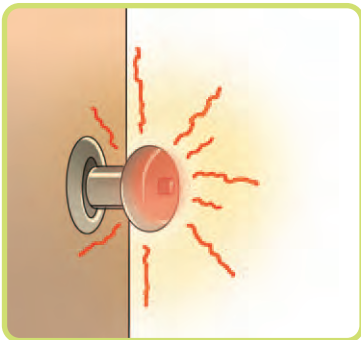


Part·3 |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4. 실내에 갇혔을 때



불길이나 연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을 때에는 소리를 질러 외부에 알리고, 무섭더라도 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함부로 창 밖으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문 손잡이나 문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문 손잡이가 뜨거울 경우 문을 열지 마세요. 불길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들 때에는 담요나 시트, 수건 등에 물을 적셔 틈을 막아주세요. 또한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연기를 피하세요. 불이 났을 때에는 연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지요.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튼 등에 물을 뿌려 더 이상 불에 타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옷에 불이 붙으면 손으로 털거나 울지 말고 빨리 엎드려 뒹구세요. 차분하게 자리에서 서서(STOP) 천천히 바닥으로 엎드리고(DROP)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앞뒤로 구르세요(ROLL).





5. 119에 신고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면,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세요.

이때 또박또박 주소를 말해야 해요.

“○○구 △△동 XX번지 □□네 집입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쉽게 찾을 수 있게 가까이 있는 큰 건물 이름을 말하면 더욱 좋아요.

“...교회”, “...슈퍼마켓 근처에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불이 난 원인을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말하세요.

“○○○ 때문에 불이 났어요.”

※ 어린이 여러분!

장난으로 119에 전화하면 절대로 안돼요.



Part · 4 |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친구나 동생이 불에 데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따라해 보세요.



그다지 큰 화상이 아니라면,
먼저 데인 곳을 깨끗한 찬물에 담가 식히세요.
이때 수돗물을 세게 틀면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세게 틀지 마세요.
또한 얼음은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 붕대(거즈), 밴드로 상처부위를
감싸 주세요.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붕대로 감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해요.



※ 약솜(탈지면)은 상처에 달라붙기 때문에 화상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옷을 입었거나 양말을 신고 있다가
불에 데었을 때에는 찬물에 식힌 후
천천히 벗겨야 해요,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억지로 벗기지 마세요,
가능하면 물집은 터트리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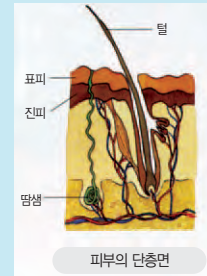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병원으로 빨리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빨리 깨끗한 찬물로 식히는 것이예요,
잊지 마세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화상"이란

'화상'이란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를 말합니다.
화상에는 아픈 정도에 따라 3가지가 있지요,

- 1도 화상 :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 피부는 붉게 변하고 따끔따끔하게 아픕니다. 5~10일 후 표피가 비늘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흠집 없이 낫습니다.
- 2도 화상 : 진피까지 상하여 물집이 생기고 매우 아픕니다.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2주일에서 1개월 정도 지나야 낫습니다.
- 3도 화상 : 진피가 모두 손상되거나, 진피 아래의 피하지방(근육)까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고, 세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치료 후에 흉터가 남게 되고 관절 부위의 경우 피부가 수축되어 움직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피부의 단층면

Part·5 |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건물에는 불이 난 것을 알려주는 경보설비, 불을 끄는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소방시설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1.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불이 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설비예요,
비상벨, 사이렌 이외에 아래 그림의 것들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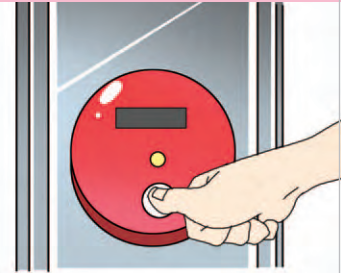
불이 난 것을 자동으로 알아채고,
이 정보를 수신기로 보내
벨이 울리도록 하는 신기한 기구예요.
감지기는 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열감지기와,
연기가 난 것을 감지하는 연기감지기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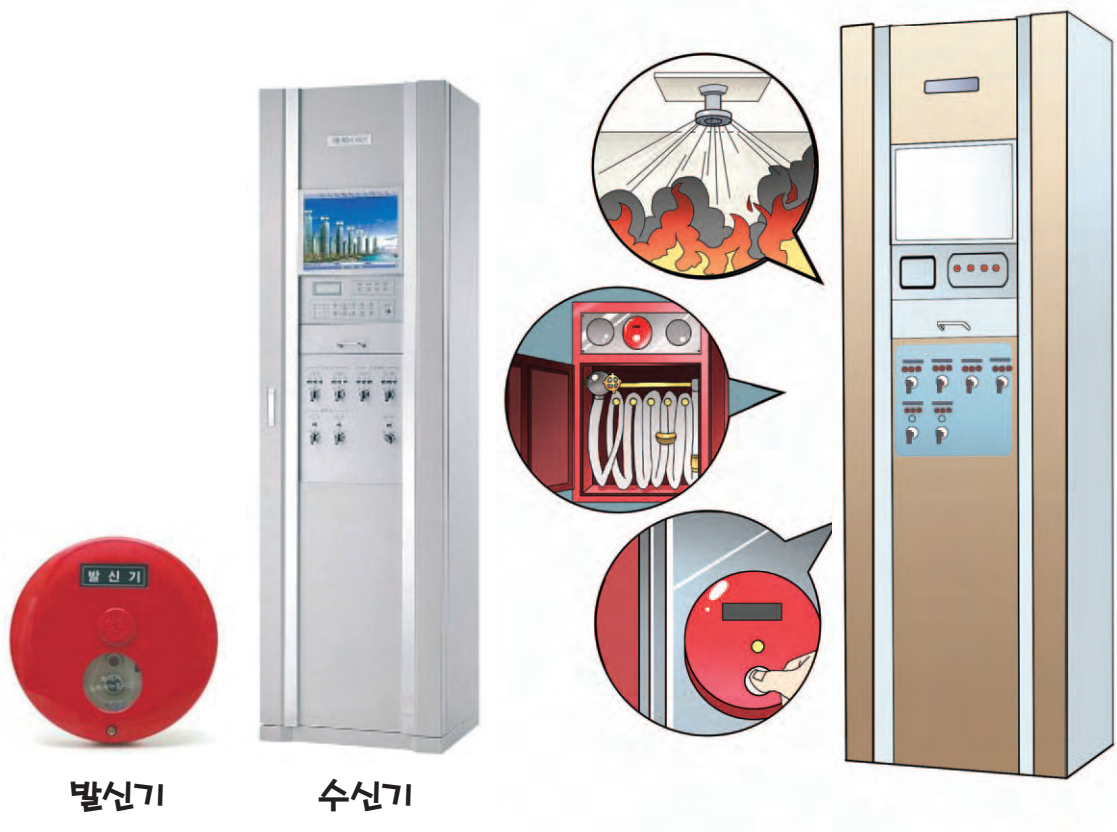
발신기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눌러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감지기와 차이점은 감지기는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벨을 울려서 알려주지만, 발신기는 사람이 꼭 눌러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어린이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장난삼아 누르면 절대로 안되지요?



수신기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예요.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보낸 화재신호를 받아서 이를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불을 끌 수 있는 기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랍니다.



발신기

수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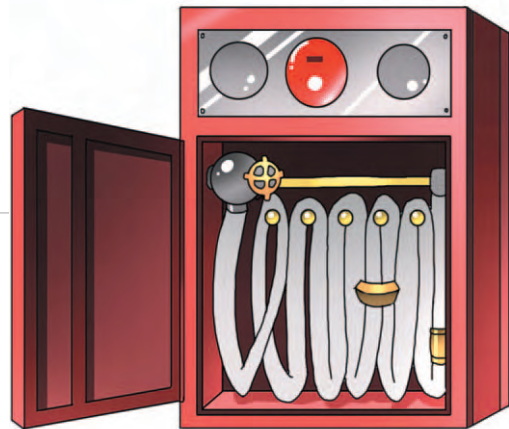
Part · 5 |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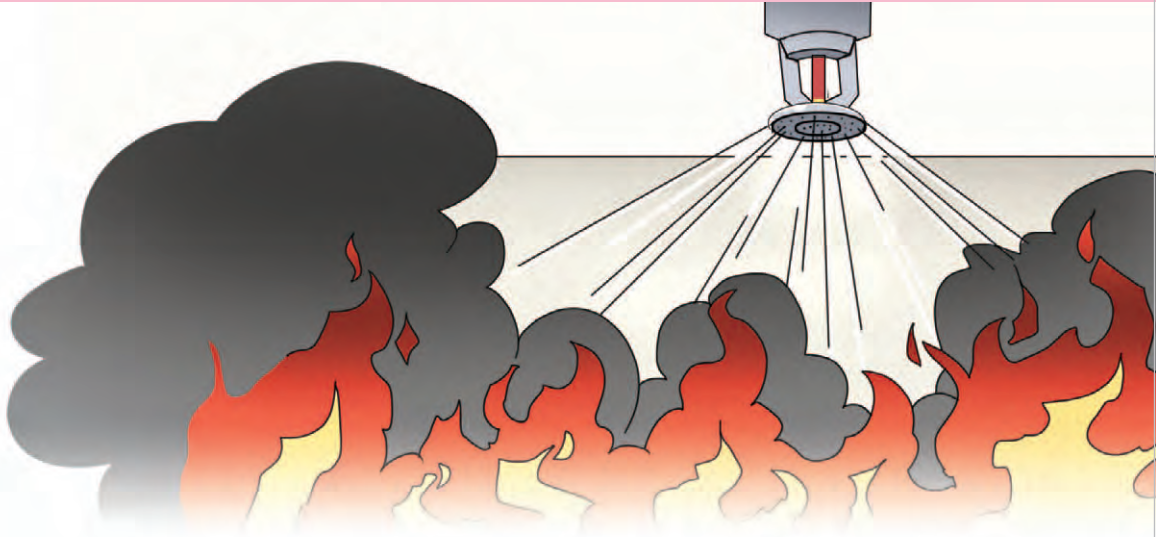
2. 소화설비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설비지요,
소화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마른 모래,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이용하는 소화설비 등이 있지요.

**옥내
소화전**

큰 건물이나 아파트의 건물 벽면에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철문이 있지요,
이 문을 열면 큰 호스가 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배관의 밸브를 열면 호스로 물이 뿜어져 나온답니다.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그림과 같이 건물 안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해 놓은 기구를 통하여 자동으로 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불을 끄도록 만든 설비입니다.



소화기

불이 처음 시작될 때나 작은 불일 경우 사람이 사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러나 천장이나 벽에 불이 붙으면 소화기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꺼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에는 빨리 대피하고 신고하는 거, 기억나지요?



Part · 5 |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소화기

집과 학교에는 거의 "ABC급 분말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가 달라지지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차근차근 알아보시다.

A 'A급 화재'는
책상, 옷, 공책, 나무, 천, 종이 등의 물건이 타는 불을 말합니다.



B 'B급 화재'는
가스나 기름에 의해 일어난 불을 말하지요.



C 'C급 화재'는
텔레비전, 변압기, 전기기구 등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전기로 인한 불이랍니다.



A, B, C급 화재에 따라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ABC급 소화기' 하나면 세 가지 불을 다 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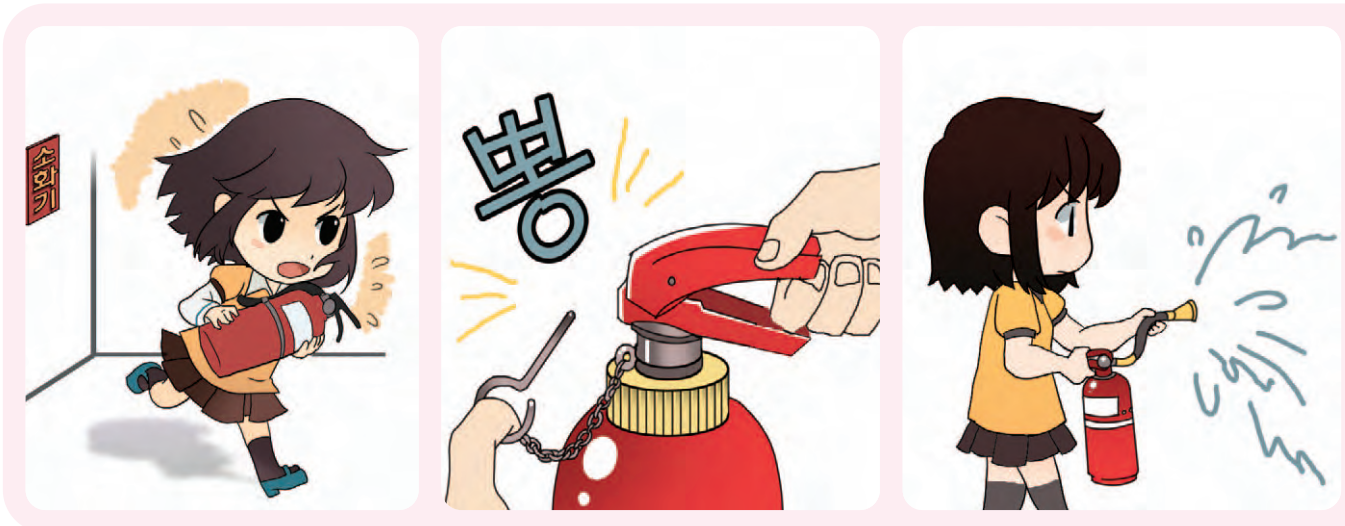
소화기의 구조



Part·5 |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소화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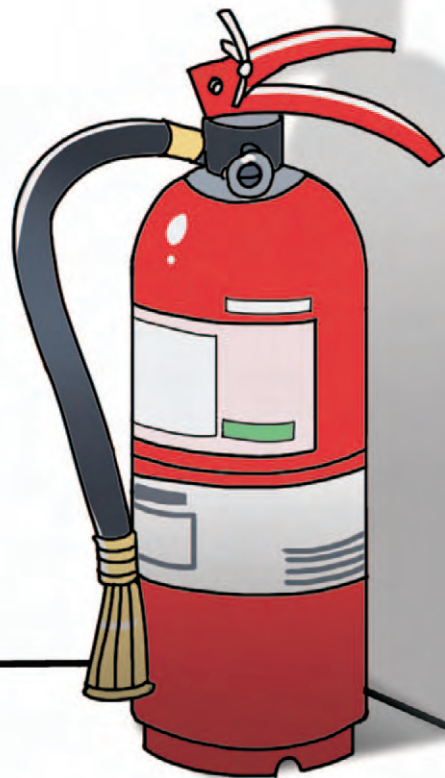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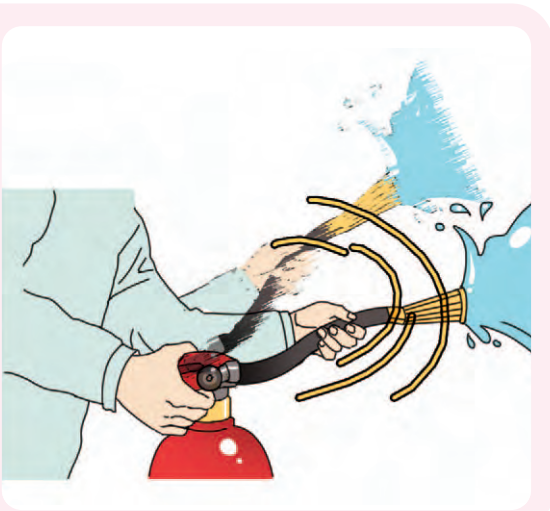
-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세요,
소화기가 멀리 있을 때에는 소화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 ② 손잡이 앞쪽을 보면 안전핀이 있는데 그것을 힘껏 뽑으세요,
- ③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해야 해요,
- ④ 손잡이를 힘껏 옮겨주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하세요,
이때 불이 난 곳을 정확히 보고 다가가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요, 불에 델 수도 있으니까요,





소화기 관리법

- ① 소화기는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넘어지지 않게 평평한 곳에 놓아야 해요,
- ②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 놓아서는 안돼요,
- ③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해요,
- ④ 소화기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돼요,
- ⑤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 나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⑥ 압력게이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지시 눈금이 중간 부분의 초록색을 가리켜야 정상입니다,
- ⑦ 불을 다루는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Part · 6 | ‘피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피난시설 : 불이 났을 경우 건물 안의 계단 등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 또는 기구입니다.

피난시설을 직접 보거나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아래 그림을 통해 사용법을 잘 익혀두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1. 피난시설



피난계단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에요, 피난계단에는 물건을 쌓아두면 안돼요, 피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옥상광장 및 헬리콥터 착륙장

옥상광장은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큰 건물에서는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하여 피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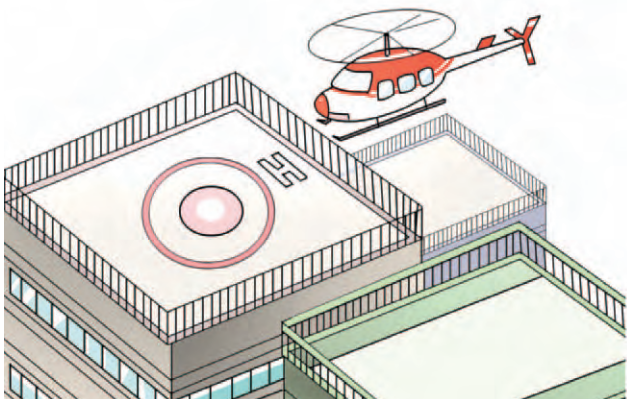
2. 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등이나 표지를 말해요, 복도 및 계단,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여요,

"비상구", "EXIT" 문자, 비상탈출그림 또는 비상구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등이 그려져 있지요,



Part · 6 | ‘피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3.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피난통로가 막히거나 불길이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창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든 것이 피난사다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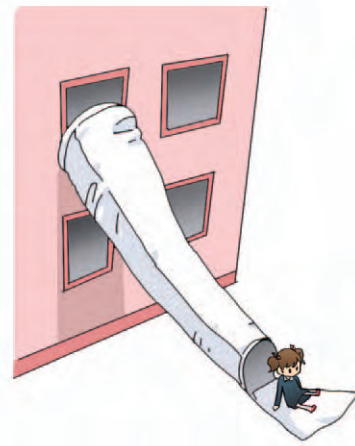
미끄럼대

건물의 창 또는 베란다에 설치하지요 유치원이나 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해요.



구조대

건물의 창에서 땅위로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는 자루 모양의 기구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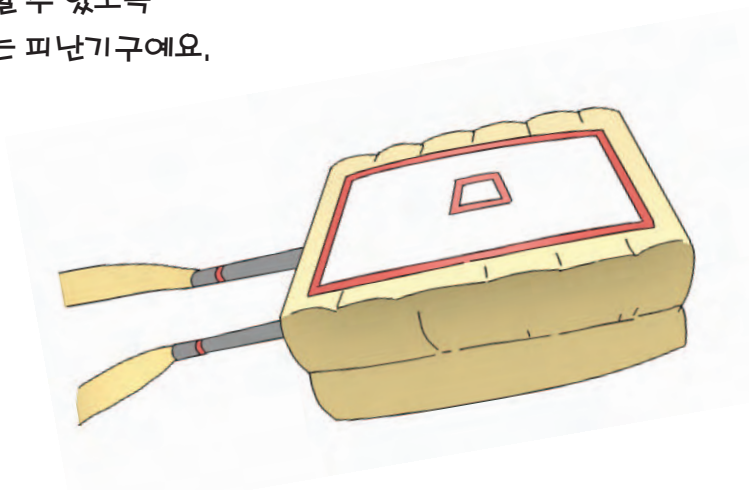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매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건물의 창이나 베란다,
호텔방 등에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지상으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피난기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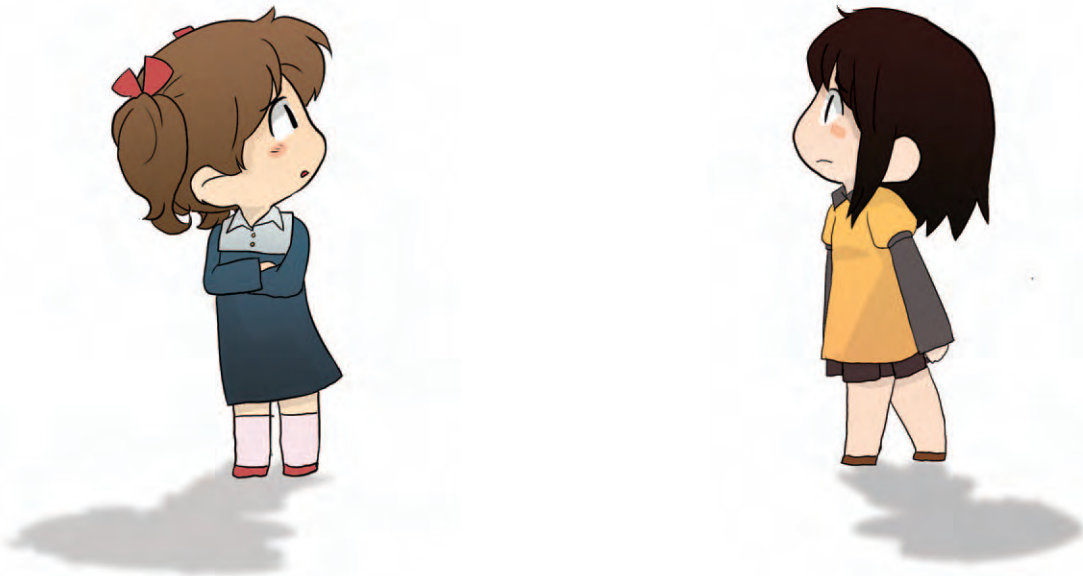


Part·7 | 불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불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1년에 4만1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10여 건씩 발생한 셈이죠.
 와! 정말 많이 발생하죠?

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비롯하여 차량, 공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1년에 4만 1천여건!
≒하루에 110여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1년 중에 봄과 겨울에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있지요.
화재신고는 '119',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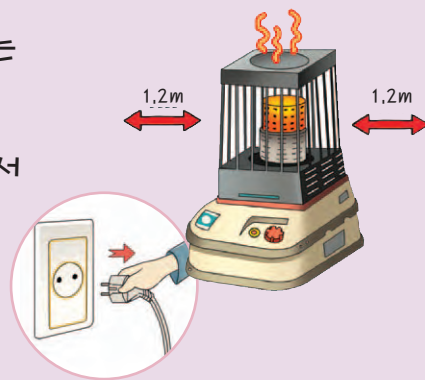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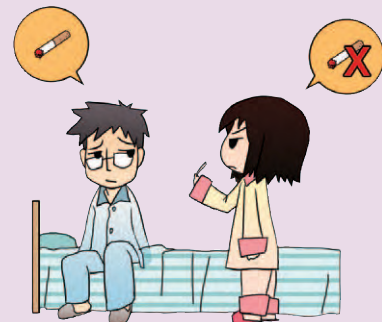


Part · 8 | 장소별 화재안전수칙



1. 우리 집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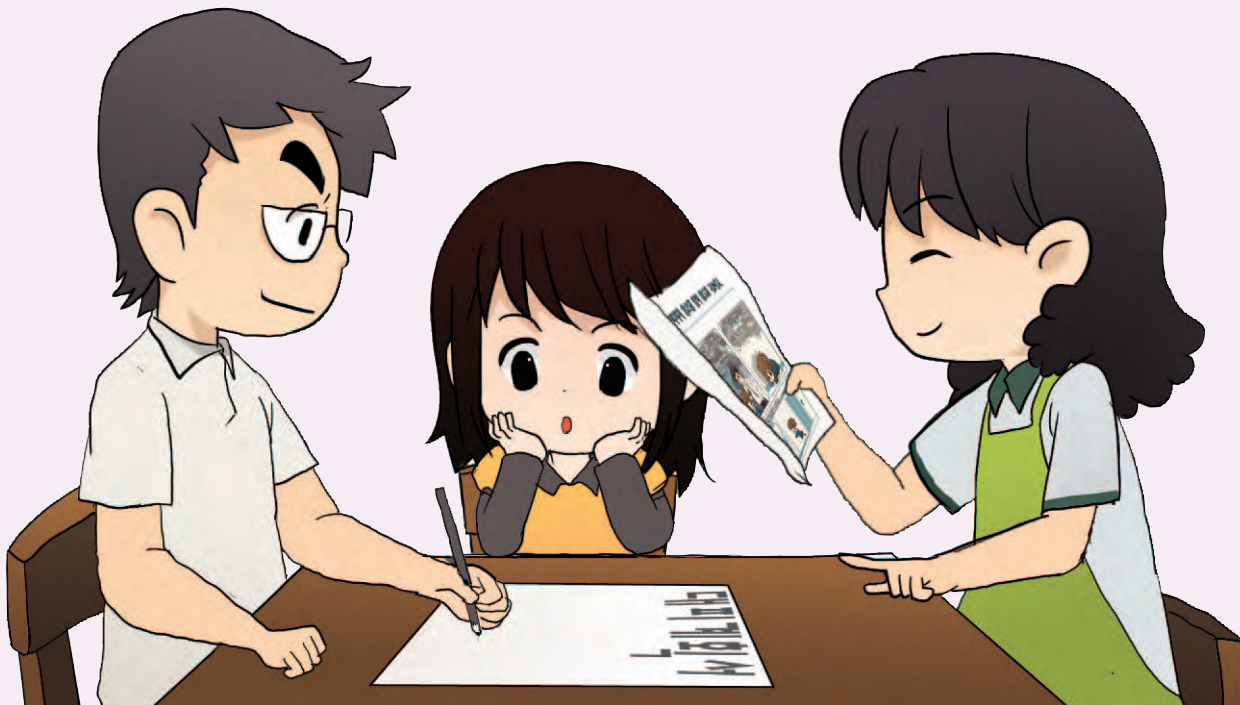
- ① 잠자기 전에 집안의 전기기구를 끄고 가스기구를 잠그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 ②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피우신 담배의 불티가 이불이나 침대에 떨어져 잠든 사이에 불이 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세요.
- ③ 난로 주위에는 탈 수 있는 물건과 최소 1.2m 이상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해요.
- ④ 난로 또는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학원에 가거나 놀러가는 등 집을 비워서는 안됩니다.
- ⑤ 컴퓨터, 냉장고, 전기난로 등 전기기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면 빨리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전기 스위치를 끄세요.





⑥ 라이터나 촛불 등으로 불장난을 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⑦ 온 가족이 모여 화재 시 대피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훈련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피 후에는 집 밖의 장소를 정해 모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불에 갇혔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Part · 8 | 장소별 화재안전수칙

2. 학교 안전수칙

- ① 급식 시간에 뜨거운 물이나 국을 엮질러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② 과학시간에 염산 등 화학약품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 램프를 떨어뜨려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과학 실습시간에는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조심히 다루어야 해요.





3. 공공장소 안전수칙

- ① 지하철을 타면 비상용 단추나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 ②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좌석 양옆 아래쪽에 위치한 비상콧을 확인하세요.
- ③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극장 등에 갈 때에는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 ④ 불이 나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지하철 열차 화재 시 대피 방법



- 어른의 도움을 받아 객실에 위치한 비상용 단추를 누릅니다.
- 119에 화재신고를 합니다.
- 객실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편을 뽑은 후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립니다.
- 좌석 양옆 아래쪽에 위치한 비상콧을 몸 쪽으로 당긴 후 출입문을 열고 지하철 밖으로 나갑니다.
- 지하철이 다니는 길에 내릴 때에는 다른 열차가 오는지 주의해야 해요.
- 역무원이나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하세요.



Part·9 | 소방관이 하는 일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무서운 불도 끄지요.

119구급활동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구해주기도 합니다.

화재예방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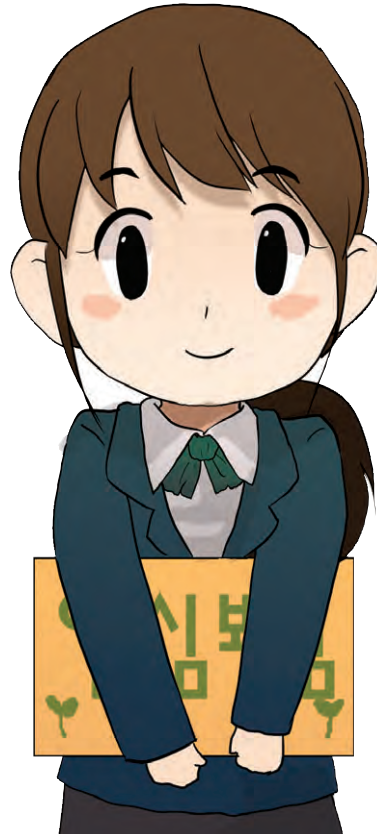


Part · 10 | 보험회사가 하는 일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도움을 주는 회사가 바로 보험회사이지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있답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을까요?

보험회사에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치료할 수 있어요,

또한 건물에 불이 났을 때에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새 집을 살 수도 있답니다,



'손해보험회사' 는 불로 인해 집이 타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부서질 때, 배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등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면 도움을 주는 회사예요, 여기에는 화재보험(건물), 자동차보험(자동차), 해상보험(배) 등이 있답니다,

'생명보험회사' 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할아버지 · 할머니가 되었을 때는 대비해서 보험에 들면 도움을 주는 회사예요, 여기에는 사망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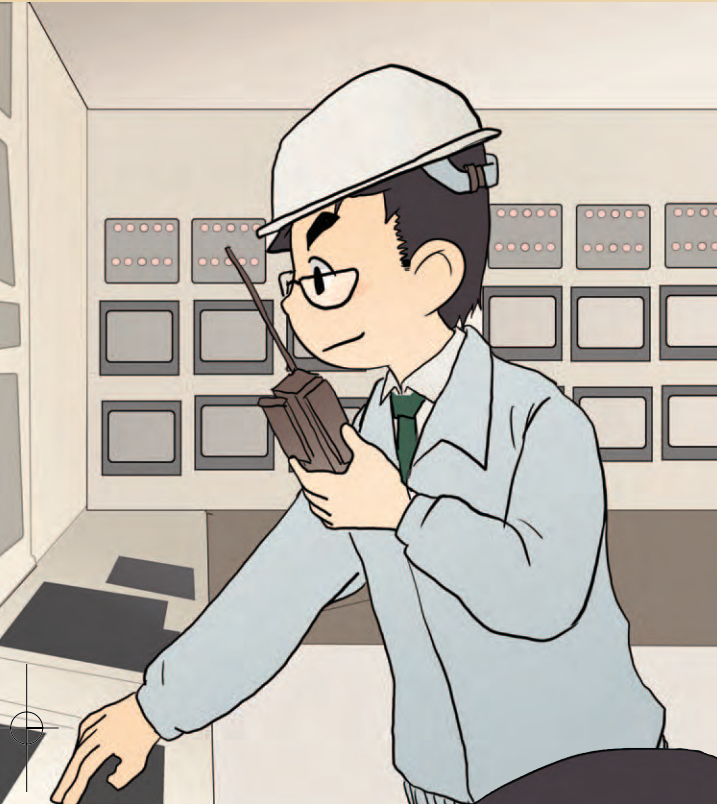
Part · II |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하는 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1973년 설립된
화재안전 전문기관이에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시장, 백화점, 공연장, 방송국, 공장,
11층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이 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에 관한 기술정보를
조사하여 보급하고, 손해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도 하고 있어요.





불조심 포스터 · 표어 현상공모 및
제작 · 배포, 우수 소방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소방안전봉사상 행사,
불조심 어린이마당,
화재안전 계몽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시설과 기술력을 갖추고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험 ·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Part · 12 | 우리가정 화재안전 map

작성요령



<그림기호>

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위험	피난동선
 = 	 = 	 = 		

우리가정 화재안전 map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표시해 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획을 세워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반 이름: _____



- 먼저 우리 집 도면을 그려보세요. 벽과 창문, 문 등을 표시하세요.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불꽃으로 표시해 보세요.
- 소화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표시해 보세요.
-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 그 밖에 우리 가정 화재안전수칙 등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Part·13 | 불조심 포스터 및 표어

☞ 살펴봐요 숨은 불씨 다시 봐요 꺼진 불씨 ☞

☞ 생활 속의 화재예방 가족행복 지켜준다. ☞



Part · 14 | 화재 사진



◀ 경기 포천시 소흘읍 가구공장 화재
2003. 5. 17

서울 송례문 화재 ▶
2008. 2.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택 화재
2002. 6.

대구-구미간 고속도로 상행선 ▶
날짜 미상



Part · 15 | 불조심 어린이 노래

불조심 어린이 노래

원 동 의 작
안 용 의 작곡
편 해 중 편곡

씩씩하게

학 교 에 서 집 에 - 서 거 리 에 서 도
씩 씩 하 게 자 라 - 자 뛰 어 놀 때 도

불 조 심 불 조 심 또 - 불 조 - 심
불 불 조 심 불 불 조 심 또 - 불 불 조 -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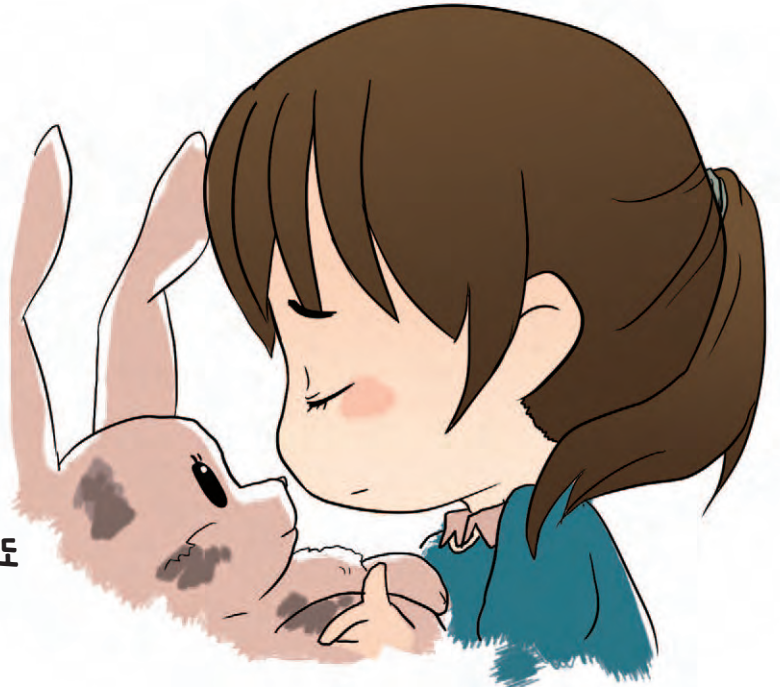


불 조 심 어 - 린 이 여 기 나 간 다
 불 조 심 어 - 린 이 여 기 에 있 다

꺼 진 불도 다 시 보 는 우 리 어 린 - 이
 불 장 난도 하 지 않 는 우 리 어 린 - 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선 생 님 도(선 생 님 도) 아 - 빠 도(아 - 빠 도) 칭 찬 하 시 네 (손 백)
 할 머 니 도(할 머 니 도) 엄 - 마 도(엄 - 마 도) 손 백 치 시 네

Part · 16 | 현주의 꿈이 불 타 버렸어요.



공부를 곧잘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초등학생 현주가 요즘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닙니다. 이빠어게서 생일선물로 받은 예쁜 안데르센 인형이 조그만 실수로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쾨농은 촛불이 너무 예뻐서 재미있게 놀다가 촛불을 끄지 않은 채 그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엄마가 일찍 발견하셔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현주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예쁜 옷도 입히고 머리도 빗겨주면서 안데르센과 속삭였던 현주의 예쁜 꿈들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주의! 그것도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가져오는 화재사고는 재산 피해 말고도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작은 불이라고 소홀히 취급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불조심 길라잡이

펴낸 곳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TEL : 02)3780-0200 FAX : 02)3780-0239
등록 제13-794호 ('94. 8. 14)

펴낸 이 · 고 영 선

엮은 이 ·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펴낸 날 · 1997. 9. 15 1판 발행
2009. 2. 15 10판 발행
2010. 4. 20 11판 발행

인 쇄 · 새한문화사 02-713-5649

* 이 책에 실린 내용이나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발췌하는 것을 일절 금합니다.

